

# 차별화된 교수법에 관한 영재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의 소신과 실천

전 재 현

University of Virginia

##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differentiation of primary teachers in a special school for gifted learners

Jae Hyun Jun

University of Virginia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아동을 위한 공립영재초등학교에서 학생의 학업준비도(readiness), 흥미(interest), 학습성향(learning profile)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교수법(differentiation)에 관한 초등학교 저학년 영재교사들의 소신과 실천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전임영재교사들이 차별화된 교수법에 대한 요구와 잠재적 이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실 안팎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영재교사들이 차별화된 교육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어떻게 모둠배치(grouping arrangements)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둠배치를 응용하여 어떻게 영재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자연주의적 페러다임(naturalistic paradigm)에 근거한 질적연구모형이 사용되었으며 개별인터뷰, 참여관찰,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세 영재교사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Yin(1989)이 제안한 연구명제(study propositions)가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사례내연구(within-case analysis)와 사례간연구(cross-case analysis)를 통해 도출되고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영재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이 차별화된 교수법을 열의를 갖고 수용하는 몇 가지 이유가 밝혀졌다.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교사들은 영재교육과 교직에 관한 강한 열정을 갖고 있었으며, 수업을 준비할 때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영재교사들은 차별화된 교수법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며 영재학생들도 일반학급의 학생들만큼 차별화된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영재교사들은 차별화된 소그룹활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영재학생들의 사회성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교수법이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영재학급에서 차별화 교수법의 성공적인 실천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요소가 드러났다. 우선 동학년교사(grade level teachers) 및 지역교육청 영재교육 담당자(district gifted coordinator)와의 협동과정을 통해 경험되는 영재교육자로서의 동료의식 및 정서적인 안정이 차별화된 교수법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밝혀졌다. 그리고 영재교사들은 차별화된 수업을 개발하고 준비하기 위해 일과 시간 이외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다. 아울러 차별화된 교수법이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급규칙과 융통적인 학급운영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4-6명으로 이루어진 모둠활동(small group activities)이 초등학교 저학년 영재학급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며, 이러한 모둠활동에서는 사전평가에 근거한 학업준비도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별화(differentiation in content areas)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개별화된 활동(individualized activities)이나 전체학급활동(whole-class activities)은 초등학교 저학년 영재학급에서는 차별화된 수업을 위한 보조활동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